

국회 예결위 '파행' 뒤 가까스로 일정 합의

종합질의 '하루-이틀' 놓고 '힘 겨루기' 민주 "골든타임 중요" 국회 "예산독재" 한병도 "소비쿠폰, 경기회복 시의적절"

종합정책질의를 하루만 하느냐 아니면 이틀을 하느냐를 두고 30일 오전 파행했던 국회 예산결산특위가 이날 여야간에 이틀간 실시하기로 가까스로 합의함에 따라 오후부터 정상화됐다.

김현정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오후 언론 공지를 통해 "추가경정예산안 심의를 위한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종합정책질의를 당초 예정됐던 하루가 아닌 이틀간 실시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앞서 이날 오전 예결위 전체회의에서 국민의힘 측은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측이 사전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심사 일정을 결정해 통보했다고 반발하면서 종합정책질을 하루가 아닌 이틀 동안 진행할 것을 요구했다.

국민의힘 간사인 박영수 의원은 의사진행 발언에서 "종합정책질을 하루만 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단 하루만 한 경우는 코로나 때 예외는 없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입법 독주를 넘어서 예산 독재까지 하려는 것"이라며 "여야 간사간 협의된 일정에 따라 다시 예결위를 시작해야 하고 이 부분이 관철되지 않고 예결위원장이 일방적으로 또 다시 의사 진행을 하겠다면 더 이상 추경 심사에 협조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반면, 민주당 간사인 이소영 의원은 "책임 있게 답변할 수 있는 장관도 아직 없고 윤석열 정권에서 임명한 장관들은 '나 몰라라' 출석도 안하겠다고 하고 대신 출석한 차관들도 책임 있는 결정이나 답변을 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반박했다.

이 의원은 "질의가 아니라 그냥 새 정부의 추경안이 못마땅해서 시간이나 더 끌어 방해하겠다는 것이 아닌지 궁금하다"며 "이렇게 시간을 끌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에 간다"고 지적했다.

결국 국민의힘 예결위원들이 단제로 퇴장하면서 오전 종합정책질의는 민주당과 조국혁신당 등 범여권 소속 위원들만 참석한 채 진행됐다.

앞서 예결위는 추경안 심사를 위한 종합정책질을 이날 진행하고 7월1일 예산소위, 3일 추경안 심사-의결 등을 끝자로 한 추경안 심사 일정을 공지한 바 있다.

한편, 한병도 위원장은 이날 KBS 라디오에서 추경 처리 시점과 관련, "민생 경제는 타이밍"이라며 "7월3일에 처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 위원장은 "추경 예산안 통과를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은 아주 절박하게 기다린다"며 "절박한 마음에 응하는 것은 지금 시기에 맞춰 늦추지 않고 처리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러한 한 위원장은 '소비쿠폰' 등을 두고 국민의힘이 '현금 살포 포퓰리즘' 추경이라고 공세를 퍼는 데 대해 "현금 살포가 아니다"며 "민생 회복 지원금을 소비 쿠폰으로 지급하면 소비 여력이 현재 살아나고 있는데 불을 지를 수 있다고 본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경기 회복을 위해 아주 시의적절한 정책이지, 포퓰리즘 정책은 결코 아니다"고 거듭 강조했다.

한 위원장은 '예결위 종합정책질을 하루만 해 줄수 있겠다'라는 야당 비판이 있다'는 진행자의 물음에 "하루를 한 경우가 코로나 (추경) 말고도 여러차례 있다"며 "민생에 대한 절박함은 날밤을 새워서라도 처리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진수 기자



30일 열린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이 퇴장하고 있다.

/연합뉴스

안도걸 "2차 추경, 골목·지역경제 살리는 조치"

예결위 종합정책질에서 필요성 역설 "尹정부 세수결산 97조5천억원" 비판

더불어민주당 안도걸 국회의원(광주 동남)은 30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정책질 의회에서 추경을 둘러싼 각종 비판에 조목조목 반박하며 추경의 시급성과 정당성을 강하게 주장했다.

안 의원은 "지금은 글로벌 경제질서가 재편되고 기술-산업패권 전쟁이 격화되고 있는 전환의 시기"라며 "우리 경제를 지키고 도약시키기 위해서는 재정-경제정책 전반의 패러다임 대전환이 불가피하다"고 진단했다.

이어 그는 "국가는 경제성장에 대해 무한책임을 지는 자세로 나아가야 하며 정부도 단순한 조정자가 아니라 '위기 해결사'이자 '혁신 기업가'

역할을 담당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안 의원은 "재정 운영도 국가 혁신을 위한 선제적 투자를 감행하는 전략적 재정운영으로 바뀌어야 한다"며 "재정적자 관리 시계도 '단년도' 중심에서 벗어나 4-5년에 걸친 '경기변동주기'로 전환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에 대해 이형일 기재부 제1차관은 "경기변동주기에 맞춰 재정 적자를 관리하는 관점에서 국가재정운영 5개년 계획을 수립하겠다"고 안 의원의 제안을 수용했다.

안 의원은 이번 추경에 대해 "빈혈 상태에 빠진 경제를 살리는 긴급 수혈조치이자 내수 침체 직격탄을 맞고 직실 상태에 빠진 골목·지역경제를 구조하는 인공호흡 조치"라며 "단순한 재정 확대가 아닌 경제 회복의 기초체력 복원"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이번 추경과 관련해 일각에서 제기한 ▲

재정 포퓰리즘 ▲재정적자 악화 ▲물가 상승 ▲금리 인상 등 4가지 비판에 대해서는 "현 경제 현실을 외면한 억지 주장"이라고 일축했다.

안 의원은 윤석열 정부의 무리한 '부자감세' 정책이 국가재정의 기초를 무너뜨리고 세수기반 붕괴시켰다고 강하게 질타하기도 했다.

그는 "2024년 조세부담률은 17.6%로 7년 전인 2017년 수준으로 후퇴했으며, 윤석열 정부 들어 2023-2025년 3년간 세수결손분이 97조5천억원에 달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이번 정부 추경안에서 국세를 10조3천억원 감액했지만 보다 보수적으로 전망해보면 세수 결손액은 17조원 수준까지 확대될 수 있다"며 "세수 핑크가 발생할 경우 이것은 전적으로 윤석열 정부의 책임"이라고 선을 그은 뒤 정부에도 비상한 세수 관리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김진수 기자

광주시, 청년정책 3년 연속 '우수'

국무조정실 평가... AI사관학교 소개

광주시의 청년정책이 정부 평가에서 우수성을 인정받았다.

광주시는 30일 "국무조정실의 '2024년 청년정책 추진실적 평가'에서 3년 연속 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고 밝혔다.

'청년정책 추진실적 평가'는 중앙부처와 전국 17개 시·도의 청년정책 추진 성과를 종합 평가해 정책의 질적 향상과 청년 삶의 질 개선을 도모하기 위해 2022년부터 시행되고 있다.

광주시는 대표 과제로 ▲일자리 '광주청년 일 경험 드림 플러스' ▲주거 '광주형일자리 근로자 주거비 지원' ▲교육 '광주 인공지능사관학교'

▲금융 '청년드림은행' ▲복지 '광주형 청년일자리공제' ▲문화 '문화콘텐츠 전문인력양성(GCC사관학교)' ▲참여·권리 '광주청년위원회 운영'을 제출했다.

광주시는 전략산업 인재 육성과 취·창업을 제고에 기여한 '일경험드림', 디지털 인재를 양성한 '인공지능사관학교', 문화 전문인력 양성과 관련된 'GCC 사관학교' 등에서 우수한 성과를 보였다. 또 청년 금융안전망 구축에 앞장선 '청년드림은행', 청년 참여 기반을 마련한 '청년위원회' 운영 역시 긍정적 평가를 받았다.

특히 인공지능사관학교는 10개월간 300여명을 대상으로 실무 중심 교육과 기업 연계 프로그램을 운영해 대표 우수 사례로 소개됐다. /기수희 기자

유임된 송미령 "양곡법, 이제 여건 돼"

"尹정부 때와 달라...식량 안보도 강화"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30일 "지금 우리 정부에서는 사전 수급 조절에 대해서 뜻을 같이하기 때문에 지금은 이제 양곡관리법을 할 수 있는 여건이 됐다"고 양곡법에 대한 공식 입장을 밝혔다.

송 장관은 이날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정책질의에서 진보당 전종덕 의원이 '윤석열 정부

에서 했던 정책을 그대로 하겠다는 거 아니냐'고 질의하자 "근본적으로 다르다"며 이같이 답했다.

그는 "이번에는 사전에 대책을 해서 남은 쌀이 아예 없는 상황을 만들겠다는 것이 핵심적인 내용 변화"라며 "이렇게 되면 식량 안보도 오히려 강화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송 장관은 "전 정부에서 (거부권을 행사)했던 '농업 4법' 같은 경우에 특히 양곡법을 중심으로

하면 사후적으로 남은 쌀을 사라는 것이 주된 내용이었다"고 지적했다.

특히 송 장관은 "충분한 예산 투자가 뒷받침되지 않는 상태에서 남은 쌀을 정부가 사겠다는 하는 건 재정 낭비가 될 뿐만 아니라 농가들 입장에서는 별다른 대안도 없이 쌀을 생산할 수밖에 없는데 그러면 쌀이 남고 가격은 떨어진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송 장관은 "쌀가격도 떨어지고 국가의 재정 부담도 크게 되는 그런 법을 농식품부 장관이 찬성할 수 없지 않느냐"고 부연했다. /김진수 기자

실리를 따진다면 가성비 좋은 피닉스입니다!

1. 믿을 수 있는 100% 국내공정
2. 신속하고 확실한 A/S
3. 합리적인 가격에 고품질리 품질



고블 G-07 프리미엄
럭셔리 프리미엄 상급자용



피닉스 K-07
럭셔리 중상급자용



피닉스 G-01
초보 입문자용

FREE 전국 택배 무료 배송!

장인의 기술

오랜기술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순수 국내제작으로
정밀함과 기술로 정성을 다해 만든 국내 장인 제품입니다.

ASTRO

최고의 명품 퍼크골프채
아스트로

A9 Nice Shot
상급자를 위한 정교한 방향성, 비거리, 타구감 향상



소비자가격 ₩ 1,380,000

헤드	단봉나부 / 고탄성 카본 / 황동
샤프트	최고급 고탄성 카본 100% (8강55g)
길이	85cm / 83cm (여성)
중량	525g (±10g)

A100 Nice
부드러운 타구감, 방향성, 비거리 최적화 / 골프엘리트 완전해결



소비자가격 ₩ 1,380,000

헤드	단봉나부 / 고탄성 카본 / 황동
샤프트	신공법으로 설계 초고탄성 카본
길이	85cm / 83cm (여성)
중량	522g (±10g), 샤프트 50g

A5
최적의 밸런스 부드러운 스윙과 안정적인 타구감



소비자가격 ₩ 800,000

헤드	단봉나부 / 고탄성 카본 / 황동
샤프트	최고급 고탄성 카본 100% (중강90g)
길이	85cm / 83cm (여성)
중량	525g (±10g)

영무SP sports

062) 653-4141

광주 남구 대남대로 252 (백운동 644-33)

www.sunparkgolf.com